

“엔터리 산단, 대불 뿐만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 지적 후 광주·전남 전역 도마위에

하남, 물류비용 큰 부담... 진입로 확장 시급

여수, 도로 관리·유지 ‘엉망’ 점용료만 챙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대불산단 전봇대’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내 산업단지 인프라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지역 국가·지방산단에 따르면 산단 진입로가 협소해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용적률이 크게 낮아 공장 추가증설에 애를 먹고 있는 산단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하남산단의 경우 산단을 관통,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국도 13호선의 확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광산구 흑석 4거리~호남고속도로 광산 IC 사이 4.8km 구간의 이 노선은 산단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전기전자 부품 등을 외부로 나르는 간선도로다. 그러나 흑석 4거리부터 구간의 절반 가량은 6차선 공사를 마친 상태지만, 나머지 구간의 경우 첫삽조차 뜨지 않아 물류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

다. 하남산단내 A업체 관계자는 “900여개 입주업체, 2만5천여명을 포함해 하루 교통량이 10만대에 이르는 이 도로가 하루빨리 확장돼야 물류부담 등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산단내에 공용주차장이 없어 직원들의 차량이 아예 도로 양편을 점유,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여수산단의 경우 산단내 54km에 달하는 도로의 관리·유지가 골치거리다. 도시계획상 ‘여수시 도로’로 돼 있는 이 도로의 31km 구간은 여수시, 나머지 23km 구간은 산단 입주업체들이 관리를 맡고 있다.

여수산단내 B업체 대표는 “23km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자주 다니 곳곳이 패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31km 구간도 제때 유지·보수가 안돼 엉망인데도 여수시는 도로 점용

료를 챙기고 도로 관리책임을 입주업체들에 떠넘긴 상태”라고 불평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점유)과 용적률(건물을 위로 쌓을 수 있는 연면적 비율)이 공장 증설 등 추가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공장용지는 건폐율 70% 이하·용적률 300%~400% 이하, 지방산단은 각각 80% 이하·400% 이하인 반면 농공단지는 60% 이하·150% 이하로 규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농공단지인 광주 소촌산단 C 입주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증설하려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에 막혀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규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토소 상무시대 활짝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한우석)는 21일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동철 의원, 김박원 광주시의회의장, 김윤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신사옥 입주식을 가졌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신사옥 입주식 참석 김재현 토공사 사장

“사랑받는 공기업 약속”

“신사옥 입주를 계기로 한국토지공사가 광주·전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21일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신사옥 입주식에서 “상무지구 신사옥이 고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 만큼 고객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번 신사옥 준공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사업지구 확대에 따른 직원 수 증가 등에 따라 작공 30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광주·전남본부 등 대형 유통매장보다 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 20~30%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기존의 양동사옥은 개인적으로 1994년부터 2년간 지사로 근무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라며 “비록 신사옥



당해 왔다든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올해는 토지공사의 새로운 BIN인 ‘L+(엘플러스)’가 선포된 원년이라는 점에서 전 직원들의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L+(엘플러스)는 땅(Land+)과 삶(Life+), 사랑(Love+)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부국철강 등 3개 지역업체

23일 기업설명회 개최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3일 부국철강, 미주제강, 성원파이프 등 광주·전남지역 코스닥상장사 3개사의 지방합동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 코스닥상장기업의 활발한 기업설명회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부국철강은 1976년 설립된 철강업체로 지난해 3·4분기 매출액 400억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미주제강은 1959년 설립된 엘리베이터 레일 제조업체로 같은 기간 매출액 486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거뒀다. 광양에 본사를 둔 성원파이프는 1980년 설립된 스테인리스관 제조업체로, 지난해 3·4분기 매출액 275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광주·전남지역본부 방문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22일 농협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를 방문, 올해 업무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또 최 회장은 지역본부 임직원들과 만나 “협동조합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한 ‘농협다운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등 성수품 가격 조사

차려상 음식에 꼭 필요한 각종 채소와 축산물 등의 재래시장 가격이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평균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18일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지역 5개 재래시장과 15개 대형유통업체(할인매장 12개 백화점 3개)를 대상으로 18가지 설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이 평균 44.7% 저렴했다고 21일 밝

설 재래시장 채소·축산물값 대형 유통업체의 절반 수준

했다. 광주 양동·대인시장 등의 경우 무(1개)값이 대형유통업체 1천500원보다 20% 싼 1천200원에 거래됐다. 또 배추(1포기) 2천500원→2천300원(8.7%), 애호박(1개) 1천500원→1천300원(15.4%)에 판매됐

다. 과일류는 사과(후지·5개) 9천원→7천원(28.6%), 배(신고·5개) 9천원→8천원(12.5%), 단감(5개) 3천200원→2천800원(14.3%), 귤(10개) 1만1천100원→8천원(37.5%)으로 저렴했다.

수산물도 굴비(1마리) 1만1천원→7천원(57.1%), 김(1속) 6천900원→5천원(38.0%), 건멸치(500g) 1만1천200원→7천800원(43.6%), 동태포(500g) 4천700원→3천500원(34.2%)이었다.

양동시장 관계자는 “4인 기준 차려상 비용이 16만~18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보다 재래시장을 이용할 경우 20~30%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가 단순히 명백한 능률증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정할 경우 건설사 등 수요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회원이 사 신청한 일련의 공동행위는 거래 상대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으며 지금까지 인가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인가 받은 사례는 전혀 없을 만큼 희귀한 제도도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전남경제인협 “물류비용 획기적 절감 대책을”

전남경제인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민간도로를 포함,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완전 면제하거나 대폭 할인해주는 물류비용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천안~논산 민자도로의 경우 기존 호남고속도로보다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

이지만 통행료가 비싸 지역 화물차의 46%가 이 도로를 기피, 민자도로 건설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남경제인들은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기대가 크다”며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법규와 제도를 고치는 일부터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 레미콘업체 ‘담합인가 신청’ 기각

공정위 “가격조정·물량배정으로 인한 피해 우려”

전남지역 레미콘업체들이 산업합리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조정과 물량배정 등을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1권역(목포시·무안군·

신안군·영암군대불단지) 소재 9개 회원사가 제출한 공동행위(담합)인가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원사는 지난해 공정위에 “산업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승인후 3년간 ‘사남권 레미콘사업본부’를 구성해 영업 및 일

반관리, 물량배정 및 조정, 가격결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동행위 인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이들 외부에 공시, 레미콘 수요업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레미콘의 경우 원재료

건축법에 의한 채소·식품·자재 등...
“실내건축 인티리아”
 돈되는 지식중! 초창기 시험을 노려라!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대출중개사 자격시험...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의 장점
 900만원으로 매달을 맞이하세요
아오자이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